

# 전주산단 기업 대표들과 경제산업 비전 공유

### 우범기 시장, 9개 주요기업 CEO 등 참석 '시장님과 함께하는 경제이야기' 현장간담회 개최... 특강·애로사항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이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을 찾아가 전주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우범기 시장은 7일 (수)전주페이퍼에서 전주지역 산업단지 내 주요기업 대표들과 함께 '시장님과 함께하는 경제이야기'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전주페이퍼 △(주)휴비스 △세플러코리아(유) △(주)창해에탄올 △효성첨단소재(주) △(주)모나리자 △비나텍 △삼양화학(주) △(주)미래페이퍼를 비롯한 9개 주요기업 CEO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주요 기업 대표들에게 전주 경제의 판을 바꿔 청년이 찾아오고 미래 신산업이 역동하는 강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 경제산업 비전 2030' 등 민선8기 주요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수)전주페이퍼에서 전주지역 산업단지 내 주요기업 대표들과 함께 '시장님과 함께하는 경제이야기'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경제·산업 정책과 비전을 설명했다. 우 시장은 또 △전주 산업단지 현황

△전주 제조업 실태 △전주 산단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이날 현장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단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식 (수)전주페이퍼 공장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주산단 내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수출 위축과 내수 둔화로 우리 경제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경제위기 속에서 결코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와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7일 한벽문화관에서 전주지역 3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사회복지인 헌신과 열정에 감사"

### 전주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사회복지인 한마음대회 개최

전주시가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시와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형석)는 7일 한벽문화관에서 전주지역 3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춤추고 두터운 약자복지확충'을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행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온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시는 서동주 전주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일해 온 사회복지 유공자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주요 수상자는 △전주시장 표창 10명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 3명 등이다.

김형석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주는 사회복지인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면서 "민·관이 서로 협력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춤추고 두터운 약자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복지안전망 강화와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봉사하고 헌신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선한 영향력이 전주가 안전하고 신바람 나는 복지도시로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하는 법정 기념일로, 시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주지역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인을 격려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김욱기 기자

## 신규 주택단지·농촌동에 안정적 수도물 공급

### 전주시, 관경 확대·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관 개량 사업 추진

전주시 만성동 두현마을 등 신규 주택단지와 농촌동에 맑고 깨끗한 수도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만성동 두현마을과 중인동 도계마을, 전미동 진기마을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급수 세대가 대폭

증가하면서 수도물 사용량이 많은 아침·저녁 시간대에 수압이 낮아지거나, 설치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상수도관으로 인한 누수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관을 확대 또는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시는 최근 급수 세대 증가로 누수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만성동 두현마을과 중인동 도계마을 일대

에 대해서는 11억 원을 투입해 1.1km 구간의 상수도관을 기존 관경 50mm를 150mm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또 노후화된 관으로 인해 누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전미동 진기마을 일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기존 PE관을 HI3P관(관경 80mm, 길이 1km)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설계용역을 진행한 후, 오는

2024년 초부터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누수율을 줄여 시민 불편 사항 개선 및 수도물 생산비용을 절감에 따른 상수도 경영합리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박용자 전주시 상수도본부장은 "급수취약지역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전주 BWF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지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2023 전주 BWF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팀(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7일 공단에 따르면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은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일까지 12일간 가동된다.

이 기간 주차 안내 등 추가로 배치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연인원이 130여 명에 달한다.

전담팀은 대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실내 도색작업과 경기장 바닥 정비 공사를 진행해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산체육관이 위치한 화산체육공원 전경

또 대회 기간 안전관리와 편의 지원, 주차관리로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도

울 예정이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대회 기간

경기장 주변 주차가 통제된다.

2023 전주 BWF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화산체육공원과 덕진체력공원 실내배드민턴장에서 50개국 선수와 임원 등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201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 주기로 열리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배드민턴 종목의 최고등급 시니어대회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열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회에 참여하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에게 전주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 연중 실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7일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심폐소생술 이론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기타 응급처치 △심뇌혈관질환 9대 수칙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는 급성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응급처치이다.

이에 보건소는 전주시민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363, 6392) 또는 덕진보건소(063-281-8557~9)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올해 현재까지 총 25회에 걸쳐 979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보건소 이외에도 소방서와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